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2023 흥해작전

#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 은혜롭게 진행 중 -

지난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23흥해작전 발대식을 시작으로 2023 흥해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6일(화)부터 17일(토)까지는 새벽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새벽기도회로, 6월 19일(월)부터 24일(토)까지는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특별새벽기도회로 진행됩니다. 흥해작전 새벽기도회에 집중하기 위해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각 교구별, 다락방별, 온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들을 알람을 통해 새벽을 깨우며 카풀로 다 함께 참여해 고난과 수렁에 빠진 성도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와 간구로 흥해를 다 함께 건너서 6월 25일 주일 찬양예배 시 승전 감사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새벽기도회	일시	6.6	6.7	6.8	6.9	6.10
	주력교구	전교구	1, 6, 7	2, 4, 9	3, 5, 8	전교구
	일시	6.12	6.13	6.14	6.15	6.16
	주력교구	1, 6, 7	2, 4, 9	3, 5, 8	1, 6, 7	2, 4, 9
특별 새벽기도회	일시	6.19	6.20	6.21	6.22	6.23
	주력교구	전교구	전교구	전교구	전교구	전교구
	찬양대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은빛	호산나 시온
						베들레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대하 7:14)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마 8:7)"

### - 호산나대학 -

##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개발의 필요성과 실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 호산나대학, 사단법인 온울은 오는 6월 20일(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민간주도 맞춤형 지원주택(HOPE HOUSE) 개발의 필요성과 실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발달장애인은 타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원 가족으로부터 생활 전반을 비롯하여 보호 및 경제적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집단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실천을 위하여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및 공동생활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모형을 제공하고 있으나, 주거 기간의 제한 및 획일화된 주거유형과 주거지원 서비스가 일반적입니다.

이번 세미나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삶의 방식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자립생활 실천을 위한 민간주도의 맞춤형 지원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발달장애인도 주택 시장의 소비자로서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주거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권동영 김중훈  
김재용 이상민 한지원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대하 32:20-23)



손달익 위임목사

애굽에서 노예생활의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꿈꾸며 처음에는 애굽 사람만 안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니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고, 이 바다만 건너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는데 홍해를 건너 감격과 기쁜 찬송의 메아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다고 이우성치는 백성들의 원망소리로 광야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물 문제 해결되니 양식 문제가 생기고, 양식이 해결되니 다른 민족들과 전쟁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도덕적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과도처럼 문제들이 밀어닥칠 때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한 것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마라에서도, 르비딤에서도, 시내 산기슭에서도 모세는 늘 하나님께 마음을 토설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무겁게 여겨지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도 때가 중요 합니다. 기도의 시기를 놓치면 위기 극복의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BC 600년경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왕국이 몰락의 위기에 처했을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의 기도도 나라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때가 있고, 우리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발생한 앗수르 군대의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BC 701년에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보낸 군대 18만 오천 명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조롱하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백약이 무효하고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옷을 찢으며 티끌을 뒤집어쓰고 통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 1. 앗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기도

BC 701 앗수르의 산헤립 왕이 보낸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앗수르는 중동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견제해야 했고, 이집트의 세력이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위치한 유다 왕국의 협력이 절실했는데 유다 왕국은 전통적으로 항상 친 이집트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유다 왕국이 밀월관계를 유지하면 앗수르는 군사, 통상,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곤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 모두를 점령한 앗수르가 마지막으로 유다 왕국 정복을 위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비상한 각오로 대처했습니다. (대하 32:3) 군사적 대비책을 세웠고 물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또 백성들을 위로하며 안심시켰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고 위기는 점차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도가 실패로 끝나고 예루살렘이 위기와 절망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이 무너질 때,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히스

기야와 이사야는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유다 군대는 크게 승리하고 모두 찬송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 2.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위기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십니다. 기가 막힌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천사를 보내셔서 앗수르 군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진멸하시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구해주셨습니다. (22절)

기도는 이런 구체적인 응답을 불러옵니다. 그 후에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낮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여 15년간의 생명 연장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 121:1-2)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돕는 분이시며 능력이시며 사랑이십니다. 권력도 사라지고 부와 명예도 녹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분토처럼 될 때가 오지만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개인의 평화도, 나라의 번영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선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의 악함을 핑계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저주하지도 말고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길이 있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 3. 기도 후의 큰 은혜

히스기야는 집권 이후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백성의 한 사람의 희생이나 군사 한 사람의 피 흘림 없이 극복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만 오 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사 37:36) 히스기야를 비롯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 없는 승리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슨 문제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그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 나라를 지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이후에도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23, 27절)

우리 앞에 위기와 도전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극복의 길도 주님 안에 언제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12)고 말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만듭시다. 기도로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행동을 선물하실 것을 믿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임태택 안수집사  
(2023 흥해작전  
동원본부장)

2010년 큰아이가 재수하던 해 수능 40일 전쯤 감기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아 강남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를 동안 검사 후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고열과 급성 패혈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치료 방법이 없으면서 회의만 계속할 뿐 저는 응급실 침대에서 기다리기만 해야 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서 가족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생사의 갈림길 최전선에 놓여 있음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환자가 힘든 상태로 사망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을 듣고 아내는 친척 어른과 형제자매에게 통보하고, 또한 서울교회 교구 담당 목사님께 긴급기도 요청을 했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모든 신체 기능을 잃고 오로지 청력만 살아있는, 시체와 다름없는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마음속

으로 부르짖는 애절한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50평생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며 살아온 당신의 아들 우택이가 아십니까? 이제 제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음을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번 또한 하나님께서 사망의 늪에서 건져 구해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세상에서 못한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온몸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통증을 견뎌내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낮게 해주세요.” 밤낮없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중 어느 날 깜깜하던 제 눈앞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찬란한 광명의 신세계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2주일 후 퇴원하고 2달 만에 교회와 직장을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퇴원할 때 담당 의사 선생님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어 약도 못 썼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했고, 저는 즉시 하나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주저할 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니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합니다.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유아세례를 받고 기독교학생회장을 역임해 신앙의 벼들로부터는 성골이란 말을 듣고 자랐지만, 부끄럽게도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의구심이 있어서 자신감 있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회개하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쁘게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순례자의 길에 크고 작은 흥해가 없는 분이 어디 있을까요?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힘 모아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은 저와 같은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죽어가는 저의 생명도 살려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라는 주제로 2023년 흥해작전이 어느덧 2주 차에 들어갑니다.

매일 아침 이불의 무게에 눌러 늦게까지 자지 말고, 용감하게 털고 일어납시다. 잠에서 깨어 아내의 손을 잡고 자녀를 안고 업고 다락방 식구들과 손에 손을 잡고, 새벽을 깨우며 서울교회 예배당으로 한숨에 달려갑니다. 우리가 흥해 앞까지 나아가서 모두 함께 힘과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매달려 말씀 받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흥해·가족의 흥해·교회의 흥해·나라의 흥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 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고 건네주실 줄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마 8:7) 아멘 할렐루야

### 선교편지 - 인도네시아

##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서광중·이성일 선교사

인도네시아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우기가 늦게 끝났습니다.

이슬람인들이 해가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하는 라마단 기간도 끝났습니다. 이돌 피트리라는 이슬람 새해에는 서로 떡을 나누며 이웃을 초대하고 이웃을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슬람 가족들에게 초대를 받아서 그들을 방문하여 음식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온 민족에게 회개의 영이 임



하게 하시고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 올 수 있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 1. 선교사 간증

지난 4월에는 압디엘교회음악대학과 대학원연합찬양대의 중부 자바 지역의 순회연주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학생들 각자 남학생들의 연주 양복과 여학생들의 드레스를 빌려 입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여학생들의 드레스를 통일하여 맞추어 주고 싶었는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한 미국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옷을 수선하는 집에 데려

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거기서 옷을 만드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이었고 마을에서 솜씨가 좋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옷 만드는 비용도 무척 비싸게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여학생들의 옷을 맞춤 수 있었습니다. 새 옷을 본 여학생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합니다. 5월에는 여학생들이 새 드레스를 입고 연주회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연습하였고 너무나 아름다운 성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얼굴과 활기가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인

도네시아에서는 없는 앵콜을 두 번이나 받았고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 2. 선교지 소식

지난 4월에는 압디엘교회음악대학과 대학원연합찬양대가 중부 자바 섬의 '쭌바라'라는 도시와 '꾸두수'라는 도시의 교회들을 방문하며 순회연주회를 하였습니다.

5월 24일에는 '웅아란' 시에 있는 '스마랑 한인 장로교회'에서 연주회를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위한 연주회는 아니었습니다. 이성일 선교사는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론 수업을 마치고 실천적인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각자의 교회학교 학생들을 지도

하기 위한 2년간의 교육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2년간의 교회학교 설교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커리큘럼을 작성해 본 적도 없고 설교 계획서도 작성해 본 적이 없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을 보며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현재 교회학교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커리큘럼이나 설교 계획서도 없이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교회 절기 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성일 선교사가 커리큘럼 이론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국의 교회학교 커리큘럼을 모두 번역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기초 2반에서 등급을 하지 못한 '길벗'과 '이르판'은 재능도 많고 성악 실력도 아주 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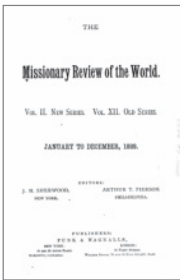
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Full time 사역자로 사역하며 한국어 학습에 더 열심을 내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6월부터는 매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2. 압디엘교회음악대학원 학생들을 위하여
3. 압디엘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을 위하여
4. 압디엘한국어학당 학생들을 위하여
5.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회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하여
6. 오마바빠 선교센터의 영구적인 장소를 위하여
7.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교회역사 강의 - 한국교회사 50장면 (19)

# 금주 금연과 기독교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카펜터  
(Frank G. Carpenter)



마펏  
(Samuel A. Moffett)



외국인이 찍은 조선시대 영상물에도 자주 등장하는 흡연 장면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한국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금주와 금연을 강조하는 것이다.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술과 담배는 금지되기도 허용되기도 하는데 한국의 경우 초기 선교사들의 신앙적 성향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의 사회 문화적 폐단이 겹쳐 매우 강력하게 금지되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술 한 잔, 담배 한 모금 한다고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선교 초기에 술과 담배는 구원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한 죄로 이해되었다.

초기 선교사들의 견문록과 여행기를 보면 한국의 문화적 특성 중 하나로 지나친 음주 습관이 자주 거론된다. 기퍼드(G. W. Gifford) 선교사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서로 상투를 잡아당기며 싸우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조선인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을 제외하고 가능한 모든 악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알렌(H. G. Allen) 선교사 역시 특히 '평양의 사람들은 소주를 많이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충분히 버는 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며 평양에 애주가가 많은 점을 우려했다. 1900년 8월 영국인 피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술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알렌은 평양을 금주 또는 소주 판매금지 구역으로 선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알렌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던 시절 아편의 폐해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조선에 아편의 저주가 퍼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하였지만 중국의 아편에 필적하는 것이 조선의 담배라고 보았다. 선교사는 아니지만 여행가와 지리학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글을 남긴 카펜터(Frank G. Carpenter)는 1889년 선교잡지

Th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게으른 흡연자로 담배 연기를 뱉을 때도 담뱃대는 그대로 입에 붙인 채 연기만 내뿜는다며 '이보다 더 바보스럽고 게으른 동작을 본 적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는 초기 내한 선교사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문제였다. 미북장로회 해외선교부 총무였던 브라운(Arthur J. Brown)은 선교 시작부터 약 25년간 내한한 선교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청교도형 신앙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켰고, 춤, 담배, 카드놀이 등을 죄로 여겼다. 엄격한 윤리관을 가졌던 이들은 음주와 흡연을 타락과 무절제, 게으름의 상징으로 여겼고 이를 개혁하는 것을 선교사로서의 사명으로 이해했다.

1893년 마펏(Samuel A. Moffett) 선교사는 엄격한 세례의 조건을 제시했다. 제사 금지, 축첩·음주·거짓말·잡기·간음 등의 악습 전폐, 주일성수, 효도, 가정 내 여성의 대우 개선, 근면한 노동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신자의 규범으로서 준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서약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우 뚜렷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으며 금주와 금연은 당연히 삶의 변화 중 핵심요소로 지목되었다. 감리교 역시 1903년 벙커(Dalziel A. Bunker)의 보고서 "절제와 사회개혁"에서 술과 담배를 만들거나 팔거나 이용하는 것을 모두 철저히 금지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 신자들도 금주와 금연을 당연한 것이자 신자로서 구별된 삶

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금주와 금연은 신자가 되는 필수요소가 되었다. 새문안교회의 초기 세례문답을 보면 술을 먹거나 술장사 하는 이는 세례를 받을 수 없었다. 또 일단 교인이 되었다더라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치리를 받았다. 실수로 음주하거나 잘못을 누우치면 당회에서 권면하거나 기도를 해주었지만 문제가 반복되면 엄하게 처벌을 받았다. 새문안교회는 음주가 첫째,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 둘째, 교회법을 어기는 일, 셋째, 가족에게 광언지설(狂言至說,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하는 일, 넷째, 자기 몸을 망하게 하는 일로 보았다. 심지어 장로회 총회는 1924년 누룩 장사까지도 치리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술과 담배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인 인간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조선사회의 개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해되었다. 선교사는 물론 한국인 신자들 역시 술과 담배는 문명개화와 경제적 발전에 해가 될 뿐 아니라 전인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필요한 근대국가 수립에도 방해가 된다고 보았다. 한국인 신자들은 금주 금연으로 축적된 경제적 이익을 바탕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개인의 개조, 사회의 정화 및 발전이 절제된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독교인들의 아이디어는 사회적으로도 확산되어 1920년대에 이르러 전국적인 절제운동으로 발전하였다.



# 지난주 우리 교회는...



- ①②③④⑤ 홍해작전 발대식
- ⑥ 2023홍해작전 새벽기도회 출석자 날인
- ⑦⑧⑨⑩⑪ 새벽기도회 스케치
- ⑫ 6월 3일 홍해작전팀 토요노방 전도
- ⑬ 저녁 9시 기도회 하시는 권사님들
- ⑭ 5교구 최근우 집사께서 홍해작전 기간 중 교회에서 주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침구 15채를 섬겨주셨습니다

사진 : 정승균 안수집사 · 김애리 권사



사무국 확장 및 보수공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2023 성경암송대회



2023년 성경암송대회 범위와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도 많은 성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11.11(토) 일반부 본선  
11.12(주) 교회학교 본선
- 범위 : 잠언 9장-16장  
(4년간 잠언 전 장 암송)
-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1월 13일(주) 찬양예배 시 암송

## 70인전도대 6월 전도 일정

날짜	주일 (오후 1시-2시)	날짜	수요일 (오후 1시-2시)	날짜	토요일 (오후 1시-2시)
				6/3	빌립 안드레 베드로
6/4	자원자	6/7	도르가 루디아 보비	6/10	바울 엘리야
6/11	자원자 마리아	6/14	한나	6/17	모세
6/18	자원자	6/21	에스더	6/24	이삭
6/25	자원자	6/28	리브가		홍해작전본부팀

### 수상



- 김성현 성도  
(가브리엘찬양대 솔리스트)  
JTBC '팬텀싱어4' 준우승 : 포르테나

### 식사 제공



- 6교구 안충현 집사 최인에 집사 가정  
(자녀 첫돌을 감사드리며)  
9교구 안재선 안수집사·문수자 권사 손녀들  
9교구 최명남 안수집사·김지은 권사 외손녀들)

##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일 자	요일	1년2독	확인
6월12일	월	욘 37:1-40:2		6월12일	월	행 12-16	
6월13일	화	욘 40:3-42:17		6월13일	화	행 17:1-21:26	
6월14일	수	시 1-7		6월14일	수	행 21:27-28:31	
6월15일	목	시 8-14		6월15일	목	롬 1-6	
6월16일	금	시 15-18		6월16일	금	롬 7-11	
6월17일	토	시 19-25		6월17일	토	롬 12-16, 고전 1-3	
6월18일	주일	시 26-31		6월18일	주일	고전 4-11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홍해작전 주제 말씀대로 저희 심령과 육신, 그리고 이 땅의 문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쳐 주소서
- 2023년 홍해작전 새벽 기도회에 모든 다락방,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지와 비전2030군선교지, 농어촌 후원 교회를 지켜 주소서.
- 폭력과 전쟁, 억압과 소외와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간구하는 모든 곳에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 땅을 친히 주관하여 주소서.

## ■ 섬기는 분들

◇ 손달의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 ◇ 전도사  
박미라 최중국
- ◇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손주찬
- ◇ 교육전도사  
김예지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전재홍 양정호
- ◇ 시무장로  
이계홍 오지열 안인호 최형열
- 차도훈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재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청년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2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영여성경부	오전 10시 15분 - 11시	802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6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